

# 야심 찼던 '우승 도전'... 결과는 잔류에 '안도'

지난해 K리그1 3위에 오르며 창단 첫 아시아 무대에 진출하는 등 돌풍을 일으킨 광주 FC는 올해 우승을 목표로 야심 차게 출발했다. 하지만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부진, 이적 등 잇따른 악재에 잔디와 재정 등 문제까지 겹치며 올 시즌 9위를 기록, 1부리그 잔류에 만족해야 했다. 광주FC의 올 시즌을 되돌아보고 내년 상위권 재도약을 위한 과제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 'K리그1 잔류' 광주FC 2024시즌 결산 <1>

광주FC의 지휘봉을 어느덧 3년째 잡으며 최만희 초대 감독, 박진섭 제5대 감독과 함께 최장수 사령탑으로 자리 잡은 이정호 제7대 감독은 올 시즌을 앞두고 선수단과 함께 우승에 대한 포부를 드러냈다.

2022년 K리그2 우승과 1부리그 승격, 2023년 K리그1 3위와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진출까지 이끌며 '흙수저의 반란'을 이끈 그가 다시 한번 축구판을 떠들썩하게 만들어보겠다는 것.

하지만 국내에서 손 꼽히는 전술가로 평가받는 이 감독에게도 현실의 벽은 높았다. 광주FC는 올 시즌 정규라운드에서 14승 1무 18패(승점 43)로 7위를 기록하며 우승 경쟁을 펼치는 파이널A가 아닌 생존 전쟁을 치러야 하는 파이널B로 떨어졌다.

파이널라운드에서는 4무 1패로 승점 4점을 추가하는데 그치면서 최종 성적은 14승 5무 19패(승점 47)로 9위가 됐다. 최종전을 남겨놓고 1부리그 잔류는 확정 지었지만 아쉬움이 남는 성적이었다.

이 감독은 이번 시즌을 두고 과정에는 아쉬움, 결과에는 만족을 표했다. 이 감독

개막 앞서 우승 포부로 한마음 부상·부진 등 잇따른 악재 발생 재정에 발목 잡혀 보강도 불가 잔디 상태에 패스 축구도 난항 이정호 "실패한 시즌 아니야"

은 시즌을 마친 뒤 "1부리그에 잔류했기 때문에 실패한 시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족한다"며 "작년과 재작년에 기대치를 너무 높여냈다. 내년에도 잔류를 원할 것인지 더 높은 순위를 원할 것인지는 저도 구단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총평을 남겼다.

또 "발전해야 하는 부분을 선수들이 잘 알고 있을 거다. 저 역시 실점을 줄이고 득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며 "우승을 바라보고 시작했고, 기대를 많이 했던 시즌이다. 독주하는 팀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18승이 목표였는데 이루지 못해 아쉽다"고 강조했다.

이 감독의 평가대로 광주FC는 올해 시즌에 성공하며 내년에도 아시아 무대와 1



광주FC 선수단이 지난달 24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북현대모터스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시즌 최종전에서 1-1 무승부를 거둔 뒤 팬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부리그 도전을 함께 이어가게 됐다. 하지만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선결되어야 한다.

지난해 47득점(평균 1.24득점)과 35실점(평균 0.92실점)을 기록했던 광주FC는 올해 42득점(평균 1.11득점)과 49실점(평균 1.29실점)으로 공수 양면에서 하향 곡선을 그렸다.

가장 큰 악재는 부상이었다. 주축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부상에 시달리면서 이 감독은 최정에 라인업을 가동해 보지도 못한 채 시즌을 마쳤다. 잇따른 부상에 전력에 남아 있던 주축 선수들마저 부담을 느끼며 부진에 빠지기도 했다.

부상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 내부에 있었다는 것도 치명적이었다. 광주FC의 속

원이었던 전용 훈련장을 지난 6월 개장했지만 배수 문제가 발목을 잡으며 약 2개월 만에 다시 문을 닫았다. 이는 실전을 치러야 하는 광주축구전용구장의 상태 악화로 이어졌고, 선수단은 장성까지 원정 훈련을 떠나야 했다.

구단 재정 확보와 선수층 강화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랐다. 리그 전반적으로 선수단 몸값이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FC는 K리그와 코리아컵, ACLE까지 3개 대회를 병행해야 했지만 광주시 지원은 100억원으로 동결됐다. 지난해 성과로 연봉 인상도 필요했던 만큼 즉시 전력감의 영입에는 무리가 따랐다.

구단 사무처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재

정 건전화 제도를 충족하지 못하며 전력 보강에 발목을 잡히는 일도 발생했다. 여름 이적시장에서 엄지성의 유럽 진출과 박한빈과 최준혁의 계약 해지, 알렉스 포포비치의 임대 등으로 선수단 몸집을 줄였지만 영입 불가 방침에 따라 김윤호와 준프로 계약을 맺는데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FC는 몸집 줄이기에 돌입할 전망이다. 내년에도 광주시 지원이 100억원으로 동결된 상황에서 은행 차입금을 갚고 자본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긴축 재정이 유일한 해답이다. 하지만 현재도 타 구단에 비해 투자가 적은 상황에서 더 줄어든다면 향후 경쟁력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붙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 전남바둑, 2024 바둑리그 정규리그 1위... 9승1패

### 신현석·한유정 남·여 다승상

전남 바둑이 2024 KBF(대한바둑협회)바둑리그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다.

9일 전남도체육회와 전남바둑협회에 따르면 전남바둑협회는 2024 KBF바둑리그 최종 11라운드 결과, 9승1패로 1위를 차지했다.

대한바둑협회 주최로 전국의 11개 지자체 등이 참가한 2024 KBF바둑리그는 5인 단체전(남 3·여 2)으로 치러지며 11월 2차경기, 12월에 3차경기로 풀리그 후 상위 5개팀이 스태퍼 방식(프로야구의 포스트시즌 형식)으로 포스트시즌을 거쳐 최종 우승팀을 가린다.

전남 바둑은 지난 7·8일 인천 중구 영종도 특별대국장에서 열린 9라운드에서

경기도에 5-0으로 승리하며 8연승에 성공했으나 10라운드에서 부산 이봉장학회에 0-5로 졌다.

하지만 최종 11라운드에서 인천SRC팜팀에 4-1 승리를 거두며 9승1패로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다.

전남 신현석은 9승1패로 김정선(부천)과 함께 남자다승상을, 전남 한유정도 9승1패로 정하음(부안)과 여자다승상을 각각 수상했다.

기명도 전남바둑협회 단장은 "올해 전국체전에서의 성적이 다소 아쉬웠는데, KBF바둑리그 정규리그에서 우승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 열심히 경기에 임해준 선수들의 열정과 끈끈한 팀웍이 이루어낸 결과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 한국 여자 핸드볼, 2024 아시안컵 결승... '숙명의 한일전'

아시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 전승 행진을 달리며 7연패를 향해 순항하고 있는 이계정호가 결승에서 숙명의 한일전에 나선다.

이계정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은 10일 오후 9시30분(한국 시간) 인도 뉴델리 인디라 간디 아레나에서 일본과 제20회 아시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 결승을 치른다.

조별 예선에서 3전 전승(승점 6)을 거두며 준결승에 진출, 상위 4개 국가에 주어지는 세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 출전

권을 확보한 이계정호는 지난 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이란과 맞대결에서 33-20 완승을 거두며 결승에 올랐다.

광주도시공사 서아루는 이날 경기에서 여덟 개의 슈팅을 모두 득점으로 연결하며 맹활약을 펼쳤다.

이연경과 정지인은 각각 4득점, 송해리와 이해원, 차서연은 각각 3득점으로 힘을 보탤다. 전반을 16-8, 더블 스코어로 마친 이계정호는 후반에는 17점을 추가하며 33-20, 13점 차 승리를 확정 지었다. **한규빈 기자**

## '봄배구권 도전' 페퍼저축은행, 박정아 반등 절실

오늘 흥국생명 3라운드 돌입 2라운드 공수 모두 극심한 난조 평균 9.5득점·성공률 28.74%



'만년꼴찌'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2라운드까지 12경기에서 4승과 승점 12점을 챙기며 중위권 도약에 성공, 봄배구 진출권까지 노리고 있다.

다만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장인 박정아의 반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1라운드에서 외인 공백 속에 소녀 가장 역할을 했던 박정아는 2라운드 들어 깊은 부진의 늪에 빠졌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6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GS칼텍스 서울Kixx와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홈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1 역전승을 거두며 올시즌 4승 8패(승점 12)를 기록, 5위로 2라운드를 마무리했다.

1라운드에서 1승 5패에 그친 페퍼저축은행은 2라운드에서는 3승 3패로 5할 승률을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구단 사상 최고 기록인 5승과 승점 17점도 전반기 달성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다.

페퍼저축은행은 오는 10일 오후 7시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를 상대로 3라운드를 시작한다. 흥국생명은 개막과 함께 전승 행진(12승



페퍼저축은행 박정아가 지난 6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GS칼텍스와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경기에서 서브를 받아내고 있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승점 34)을 달리며 독주 체제를 구축했다.

올시즌 흥국생명과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패배한 페퍼저축은행이지만 최근 흐름은 180도 달라졌다. 특히 테일러 프리카노가 한국 무대 입성 후 일곱 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생산하고 있고, 최근 세 경기에서는 30% 넘는 공격 점유율을 가져가는 동시에 성공률도 3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테일러가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사이 박정아의 경기력이 페퍼저축은행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됐다. 장소연 감독은 GS칼텍스전에서 박정아가 컨디션 난조를 보이자 1세트 막바지 벤치로 불러들인 뒤 다시 투입하지 않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박정아의 부진은 기록에서도 드러난

다. 1라운드에서 88득점(평균 14.67득점)을 올리며 공격 성공률 36.69%를 기록했던 박정아는 2라운드에서는 57득점(평균 9.5득점)과 공격 성공률 28.74%에 그쳤다.

박정아가 반등에 실패한다면 테일러와 장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GS칼텍스전에서는 이예림이 13득점, 공격 성공률 48.00%로 분투했지만 상대가 외인 없이 경기를 치렀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결국 페퍼저축은행에는 박정아를 확실하게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 만큼 부활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정아가 몸과 마음을 모두 가다듬고 온전히 돌아왔을 때 페퍼저축은행은 비로소 100%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한규빈 기자**